**31과 새 지도자 여호수아 - 우호철목사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구원하여주신 크신 은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로 저희들 불러 세워주셨습니다.

저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 더욱 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저희에게 맡겨주신 어린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칠 수 있는 교사의 직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과 생각 주관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수고하는 모든 시간들 가운데 온전히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릴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길,

지켜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 주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 교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저희들 마땅히 마음에 품고 주님일에 먼저 앞에서서

수고하는 사람으로 본을 보이는 사람으로 마땅히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하시고

또한 그일 가운데 온전히 주님 섬길 수 있도록, 저희들 먼저 다스려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한 시간 온전히 주님께만 의탁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저희들 지혜 더하여주시고 이시간 함께하여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El nuevo líder, Josué**

Dios padre santo y misericordioso

Te doy muchas gracias por tu gran gracia de salvarnos.

Además tu nos has levantado en la igelsia que es el cuerpo, como los profesores que enseñan la palabara del Señor.

Permiténos más la palabra necesaria y el corazón ardiente que anhela la gracia de Dios.

Y goberna más nuestro corazón y pensamiento para que podamos encargar bien el ministrio de enseñar la palabra correctamente a los estudiantes dados hasta que estemos delante del Señor.

Entre todo el tiempo de trabajar delante de Dios,

Guíanos y protegénos para que podamos alabar y glorificar al Señor

Hoy en esta mañana, empezamos el día con la palabra del Señor.

A los profesores, añade más gracia con la palabra nesesaria de Dios. Y haznos para que tengamos el corazón digno y que podamos saber qué debemos que hacer como el ejemplo en trabajar tu obra.

Además ante todo, gobernanos a nosotros para que podamos servir al Señor enteramente

Guianos a través de la palabra.

Hoy, esta una hora, solamente confiamos en el Señor.

Señor, danos más sabiduría para entender bien la palabra, y acompaña con nosotros en esta hora.

Hemos orado en el nombre de nuestro Señor Jesús que nos ama

안녕하세요. 오늘 여호수아에 대해서 공부할 시간입니다.

먼저 민수기 27장 찾겠습니다.

민수기 27장...

모세이후에 새로운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게될 모세가 ...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새로운 지도자로 선출하시는 것을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7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의 감동된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새로운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선출할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위에 12절부터 말씀을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네 형 아론의 돌아간 것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 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제 너의가 내 명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나의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 광야 가데스의 므리바 물이니라]

Buenos días, hoy, estudiaremos acerca de Josué.

Primeramente vamos a buscar Numeros capitulo 27.

Numeros capitulo 27.

el Nuevo líder que iba a guiar al pueblo de Israel, Deuspués de Moisés,

Vamos a averiguar juntos el proceso de ser seleccionado Josué como el nuevo líder a través de Moisés.

**Desde Numero 27:18 hasta 20 Leamos juntos.**

**Núm 27:18 Y Jehová dijo a Moisés: Toma a Josué hijo de Nun, varón en el cual hay espíritu, y pondrás tu mano sobre él;**

 **Núm 27:19 y lo pondrás delante del sacerdote Eleazar, y delante de toda la congregación; y le darás el cargo en presencia de ellos.**

 **Núm 27:20 Y pondrás de tu dignidad sobre él, para que toda la congregación de los hijos de Israel le obedezca.**

Esta palabra..

Dios hablando a Moisés que iba a elegir a Josúe como el nuevo líder

Arriba, si vemos desde versículo 12, Dios habló a Moisés que :No podría(podrá) entrar a la tierra Canaán.,

Vamos a ver desde versículo 12.

**Núm 27:12 Jehová dijo a Moisés: Sube a este monte Abarim, y verás la tierra que he dado a los hijos de Israel.**

 **Núm 27:13 Y después que la hayas visto, tú también serás reunido a tu pueblo, como fue reunido tu hermano Aarón.**

 **Núm 27:14 Pues fuisteis rebeldes a mi mandato en el desierto de Zin, en la rencilla de la congregación, no santificándome en las aguas a ojos de ellos. Estas son las aguas de la rencilla de Cades en el desierto de Zin.**

예 이 무리바에서 있었던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맙니다. 그리고 느보산에서 조상에게로 돌아가게 되지요.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했는데, 그들을 그사람을 모세도 원했습니다. 어떤사람으 뽑으면 좋겠습니까?

투표에 붙일까요? 아니면 제비를 뽑을까요?

사람의 방법으로 새로운 지도자를 뽑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뽑으신거에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직접 뽑으신 사람이었습니다.

새로운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드릴...

성경에 많은 지도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지도자의 역할,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온전히 감당치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함께하고 있는 백성들을 잘 못 된 길, 하나님앞 에 불순종의 인도하는 많은 리더들이 있었습니다.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순종하도록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을 인도한 지도자들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아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오늘은 이 여호수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스라엘백성에게 나타내시고자하는 이 여호수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가나안땅으로 인도하여 드린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Por causa de este acontecimiento en Meriba, Moisés no pudo entrar a la tierra de Canaán. Y fue unido a su pueblo en el monte Nebo

Duespués, necesitaban un Nuevo líder para llevar al pueblo de Israel a la tierra prometida por Dios. Ellos incluso a Moisés quierían. ¿A quién y cómo elegirían?

¿Por voto(votación o por sorteo?

No elegió con la manera de humano

Sino Dios decidió.

Dios mismo escogió.

Josúe fue el hombre a que Dios elegió si mismo.

Como el Nuevo líder que iba a guair al pueblo de Israel a la tierra Canaán.

En la biblia salen varios lideres.

Algunos,… mientras trabajaban bien el papel del líder, Puesto que no hicieron sus encargos que Dios les dio. guiaron al pueblo de Israel que estaban juntos co ellos(lideres equivocados) al camino equivocado, al camino de desobediencia,

Había muchos líderes, dirigentes así.

Al contrario, Podemos ver los aspectos de los líderes que guiaron a los que acompañaron con ellos para que pudieran obedecer a la palabra de Dios.

Así hay Dos tipos de personas.

Hoy, este Josúe, como el hombre de Dios,

Josué, Quién Dios quiere mostrar su obra al pueblo de Israel por medio de él,

Josué, Quien guió al pueblo de Dios a la tierra de Canaán conforme a la palabra de Dios,

A la hora de averiguar a este Josúe.

자 민수기 13장을 보면 여호수아의 이름이 호세아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을 보면 정탐군들을 뽑을 때 그 여호수아를 눈의 아들 호세아로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호세아를 모세가 민수기 13장에서 보내면서요. 정탐군으로 보내면서 여호수아라고 이름을 바꿔주는 것을 또 한번 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다라고 하는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호수아라는 이름으로 바꿨을 때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다라는 뜻으로 바뀐 겁니다.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이름을 바꿔 준거에요.

잘 아시겠지만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입성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장정들 가운데 가나안으로 들어간 두 명 중 가운데 한 명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생을 마감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으로 들어갔죠.

그 두명 중에 한 명이 오늘 우리 공부하는 여호수아입니다. 그쵸.

그리고 리더로서의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정말 갖추고 있고 그리고 지도자로서 그 역할을 다 했습니다.

근데 그 이면에는요.

특별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지도자의 역할을 부임을 받았고,

부여받았고, 그 일을 감당했던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Si vemos el capítulo 13 de Numeros, el nombre de Josúe sale como Oseas.

En el capítulo 13 de Numeros, al elegir a los espias, podemos ver que se llamaba Oseas hijo de Nun así a Josúe.

 Pero, Cuando Moisés enviando a este Josué... en el 13 de Numeros, enviandole como una espía, cambió su nombre como Josué., podemos ver

Oseas ,El nombre de Oseas significa la salvación.

Pero al cambiar nombre como Josué, se cambió el significado ¨Jehová es mi salvación¨.

La salvación proviene desde Dios, así cambió el nombre.

Como lo sabéis bien, Este Josué como el sucesor de Moisés, guió , y al pueblo de Israel después de Moisés.

entró a Canaán

Y fue uno de dos que entraron a Canaán entre los varones isralitos que salieron del Exódo.

Todos otros hombres murieron en el desierto, pero solamente Josué y Caleb entraron a Canaán.

Uno de entre 2 varones es Josué que estamos estudiando. Sí?

Y Él, como el líder, como el dirigente, poseía todos los aspectos Y lo Cumplió perfectamente su papel,

Sin embargo, en el fondo de esto.

No le dio Dios el papel del líder, porque él tenía ciertas habilidades especiales

Ni él encargaba aquell ministerio.(por eso)

No trabajó de Dios con su propia habilidad.

Fue un hombre que completamente confiaba en Dios y servía a Dios, lo podemos saber.

그리고 이 여호수아는요. 제일 먼저 등장한 여호수아가 등장하는 것이 아말렉과의 전쟁하는데부터 성경에 등장을 해요.

그쵸.

그리고 평생을 110세에 생을 마감할때까지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가운데 분배하여 주는 그런 과정가운데도 계속 전쟁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전쟁가운데 살았던거에요.

여호수아를 다르게 표현을 하면 전사의 모습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평생을 전쟁가운데 살았던 분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했고 가나안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했던 사람입니다.

처음에 가나안땅을요. 이스라엘백성들에게 주시겠노라고 약속하신건 누구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쵸.

그리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노라고 약속하신건 아브라함입니다. 그쵸.

갈대아 우르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땅에 살고있던 사람을 불러내서 가나안땅으로 가게하셨어요.

그리고 그 땅을 너와 네 후손들에게 주시겠노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가나안땅에 가서 살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아직 구성이 되지 못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노라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땅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민족을 출애굽시키시고요.

가나안 목전까지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땅 하나님이 주시겠노라고 약속하신 그 땅은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여호수아의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지로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Y este Josué.

Por primera vez, Josué apareció en la Biblia desde la guerra con Amalec.

Verdad?Y toda su vida, hasta el fin de su vida a la edad de 110 años

Conguistó Canaán y hizo destribuir la tierra Canaán a los israelitas. En este proceso, la guerra no cesó.

Vivió toda su vida dentro de la guerra.

Si expresamos a Josué de la diferente manera,

podemos expresar como un guerrero.

Vivió toda su vida en la guerra

Fue un varón que conquistó y distribuyó la tierra de Canaán al pueblo de Israel.

Al prinficio, la tierra de Canaán, ¿a quién promedió que daba(Dios iba a dar) al pueblo de Israel?

Dios prometió a Abram. ¿sí?

Vete a la tierra que te mostraré. Y haré de ti una nación grande, y te bendeciré y engrandeceré tu nombre, y serás bendición. Así a Abram le prometió. ¿verdad?

En Ur de los caldeos, un hombre que vivía en la tierra que no servía a Dios, Dios le llamó y hizo ir a la tierra Canaán.

Y prometió que daré esta tierra a tí y a tu generación.

Vivían en la tierra de Canaán, pero la nación de Israel aún no estaba constituida.

Y para guiar al pueblo de Israel a la tierra de Canaán prometida,

através de Moisés hizo que los isralitos salieran del Eguipto

Y condujo hasta enfrente de Canaán.

Y la tierra de Canaán, a tierra prometida por Dios

a través de la mano de Josué que hoy estudiamos

★ Dios está trabajando para que al pueblo de Israel pueda ocupar esta tierra.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호수아는요. 성경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쟁하는 아말렉족속과 전쟁하는 가운데, 등장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출애굽기 17장 처음 여호수아가 등장하는 곳입니다. (10:00)

출애굽기 17장 9절 아 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예~ 이전쟁 잘 알고 계시지요.

이 아말렉과의 전쟁하는데요.

르비딤에서 싸울때에 여호수아는 처음 등장합니다.

이 처음 등장할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장관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쵸. 아~~이 모습처럼 여호수아는 계속 전쟁가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고 그 땅을 분배하고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갈때까지

계속 이런가운데서 살게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되죠.

그리고 또한 여호수아를 이야기할 때 한가지 빠뜨리지 않고 항상 등장하는 것이 있어요.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을 섬기기 이전에 또 자기가 분명 섬겨야할 분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일까요? 예 맞습니다. 모세였습니다.

여호수아를 이야기할때는 항상 모세를 섬기는 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8장 ...

여호수아를 이야기할때는요. 항상 수종자, 시종이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아~민수기 11장 28절입니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가로되 내 주 모세여 금하소서]

Vamos a observar uno por uno

Este Josué. Por la primera vez salió en la biblia en la lucha contra Amalec,(ya les dije)

Este Josué entre las guerras salió así.

Éxodo capítulo 17. Sale Josué por la primera vez

Éxodo 17:9, ah, desde 8 voy a leer.

Éxo 17:8 Entonces vino Amalec y peleó contra Israel en Refidim.

 Éxo 17:9 Y dijo Moisés a Josué: Escógenos varones, y sal a pelear contra Amalec; mañana yo estaré sobre la cumbre del collado, y la vara de Dios en mi mano.

esta guerra, todos sabéis bien.

Al luchar contra Amalec.

en Refidim, Josué aparece por primera vez. Cuando apareció por primera vez, apareció como un jefe del ejército del pueblo de Israel como el ejército general de Jehová.

Cierto. Asi Josué en las guerras continuas. (ya hablé antes)

★Hasta que los israelitas se establezcan en Canaán, distribuyan la tierra y vivan en el servicio de Dios en la tierra, (Josué) seguió viviendo en esta situación.

y Guió a los israelitas.

Y además al contar sobre Josué, hay una cosa sin falta siempre aparece.

Josué. Antes de servir a Dios, tenía alguien que también debía servir además.

¿Quién fue? Sí, verdad. Fue Moisés.

Cuando habla de Josué, siempre dice que era un siervo de Moisés. Numeros capitulo 18.

Cuando habla de Josué, simpre se adjunta a la palabra ¨servidor¨,¨ayudante¨

Núm 11:28 Entonces respondió Josué hijo de Nun, ayudante de Moisés, uno de sus jóvenes, y dijo: Señor mío Moisés, impídelos.

항상 여호수아 앞에는 이런 수식어가 붙어요.

자요.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을 무슨 생활이라고 해요

종교생활이요? 신앙생활이요?

예 ~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이라고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생활이라고 하는거에요.

그쵸. 오늘 아침에 식사하셨죠. 표정을 보아하니 안드신분들도 계시네....

좋습니다. 다 하고 온 것 제가 한가지 질문드릴께요.

양치는 다 하셨죠?

예~~? 예~ 가서 아침에 세수하고 씻고 그리고 화장하고 다 생활이에요. 그쵸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앞에 사는 것도 생활입니다.

신앙생활입니다. 그쵸.

여호수아의 생활은요. 여호수아가 실제 살았던 모습을 살펴보면 모세를 섬기는 생활을 했어요.

모세를 섬기면서 무엇을 배웠느냐? 모세를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도 직접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도 직접 보는 거에요.

우리가 기적을 보고 사는 것처럼 여호수아도 직접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보면서 살았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모세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24장 ... 출애굽기 24장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시내산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세를 보는겁니다.

Siempre, Josué tiene este calificador delante de él.

Mirad ¿ después de ser salvo Cómo llamamos la vida de los cristianos?

Vida religiosa? le vida de la fe?

SI llamanos la vida de la fe.- vida cristiana.

La vida de la fe se refiere una vida de confiar y de servir a Dios.

Sí?. Hoy en la mañana habéis desayunado? Algunos no al ver sus rostros.

Bueno. todos. pues voy a preguntar una cosa

¿Os cepilláis todos?

Sí ~~? Sí. Por la mañana lavar, bañar y maquillarse

todo estos son la vida. ¿sí?

Es lo mismo. También es la vida que vivimos delante de Dios después de recibir la salvación.

 es la vida de la fe. Sí.

La vida de Josué. Cuando vemos la vida real de Josué, el llevó una vida de servir a Moisés.

Al servir a Moisés, ¿Qué aprendió? Por medio de servir a Moisés, pudo ver directamente a Moisés que tuvo contacto con Dios.

Y también vio directamente la obra de Dios a través de Moisés

Como vivimos viendo los milagros, Josué también vivió mirando directamente el poder y la autoridad de Dios.

A Moisés, serviéndole, vio a Dios que trabajó a través de él.

Éxodo capitulo 24. Desde Éxodo 24:12 voy a leer.

(Él) vio a Moisés que subió al Monte Sinaí por llamada de Dios.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네게 주리라

모세가 그 종자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하고]

장로들이 없어서 여호수아를 데리고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장로들도 계셨어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 모세는 누구를 데리고 올라갔다고요?

종자 여호수아를 데리고 올라갔어요.

이 여호수아의 삶은 여호수아의 생활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모세를 섬겼어요.

그 결과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게 되었던 거에요.

어느 날 갑자기 차기 지도자로 선출된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차기 지도자로 모세의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지도자로 변신한 것이 아닙니다.

생활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매일매일 살아가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지도자의 역할을 준비했던 것을 살펴볼 수 있었던 겁니다.

또 한가지 살펴봐야 할 것은

이 여호수아 결국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을 매일매일 지켜 본 거에요.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울까요?

Éxo 24:12 Entonces Jehová dijo a Moisés: Sube a mí al monte, y espera allá, y te daré tablas de piedra, y la ley, y mandamientos que he escrito para enseñarles.

 Éxo 24:13 Y se levantó Moisés con Josué su servidor, y Moisés subió al monte de Dios.

 Éxo 24:14 Y dijo a los ancianos: Esperadnos aquí hasta que volvamos a vosotros; y he aquí Aarón y Hur están con vosotros; el que tuviere asuntos, acuda a ellos.

No llevó a Josué porque no había los ancianos.

Había los ancianos representativos y los que gobernaron Israel.

Estaban en este lugar.

Pero Moisés ¿A Quién trajo al subir delante de Dios?

Subió llevando su servidor, Josué.

La vida de Josué, su vida es.

Servir a Moisés que servía a Dios.

Como resultado, pudo aprender a servir a Dios.

por un día, repentinamente no fue elegido como siguiente líder.

No en un día, de repente, se convirtió en un lider que guió al pueblo de Israel a la tierra que Dios prometió después de Moisés

En la vida diaria, en su vida, vivió todos los días como el hombre de Dios.

Y a través de esto, estaba preparando el papel del líder, así podemos entender.

Y una cosa más que tenemos que observar.. es

Este Josué, en suna(en definitiva),

vio todos los días que Moisés se comunicó con Dios, vivió como el hombre de Dios y que obedeció conforme a la palabra. Observó eso.

Creo que los profesores también.

¿De qué aprenderán los estudiantes?

선생님들의 말이요?

우리 선생님들이 가르치시는 말씀을 가지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선생님 말씀만 가지고 알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실제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말로도 가르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법 우리 선생님들이 하나님 섬기는 것을 아이들이 보고 배우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기도하시는 거요.

아이들하고 같이 분반하고 기도하는 거 아이들이 집에가서 그 기도 그대로 흉내내서 하는 거 아시죠.

성경 읽는것도 그리고 말씀가운데 분반시간에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그 억양, 톤 집에 가서 그대로 흉내닙니다.

아니라고요.

선생님들이 분반하실 때 애들이 엄마아빠 흉내내는 것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집에서 무슨 일 있었는지 아이들 얘기 들어보신 적 없어요?

그것처럼 분반에서 일어나는 일도 집에 가서 그대로 해요.

아이들 마음엔 선생님의 말씀보다는 우리 선생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그것 가지고 그것 보면서 더 많이 배웁니다.

실제 하나님 섬기는 것은 말이 아니고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그 친구와 같이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예~ 모세가 하나님하고 친구처럼 이야기해요.

그걸 옆에서 맨날 봐요.

La palabra de los profesores?

A través de la palabra que instruyen los profesores, por medio de estos, ¿podrán conocer a Dios y entenderán qué es la voluntad de Dios? solamente por las palabras? NO.

En realidad, enseñamos a los estudiantes con la palabra, pero ¨Cómo sierven a Dios los profesores.¨Mirando eso los estudiantes aprenden más-

La oración de los profesores.

¿Sabéis que los estudiantes imitan las oraciones de la clase cuando regresan a la casa?

leer la biblia también. y en el sermón.. en la hora de la clase,

la entonación del profesores, ese acento, lo imitan cuando regresan a su casa

NO?

Cuando estáis en la clase individual, habéis visto que los niños imitan a sus padres? no?

¿No habéis oído qué pasan los niños en la casa?

Así mismo, ellos hacen lo mismo en su casa lo que pasa en la clase.

En el corazón de los niños, más que con la palabra de los profesores, con los aspectos(la vida) que están viviendo delante de Dios los profesores, por medio de eso, pueden aprender más.

Porque servir al Señor verdaderamente no por la palabra sino es la vida.

Éxodo 33 : 11 leamos junos.

**Éxo 33:11 Y hablaba Jehová a Moisés cara a cara, como habla cualquiera a su compañero. Y él volvía al campamento; pero el joven Josué hijo de Nun, su servidor, nunca se apartaba de en medio del tabernáculo.**

Así Moisés hablaba con Dios como amigo

Y a lado de eso, vio todos los días.

그리고 그 보고 배운 것처럼 실제 하나님과 자기도 그런 관계를 맺습니다. 그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담대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이건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쵸. 하나님 먼 곳에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실제 생활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모세와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보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웁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를 사귀면 해를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사람과 그 옆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일이였어요.

그것이 여호수아를 다음 지도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매일매일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배경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모세의 역할도 컷어요.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는 것을 가르쳤잖아요. 그쵸

자 그리고 이 여호수아의 삶 가운데서의 또 하나의 특징은

온전한 믿음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가데스바데아에서 이스라엘백성들 가운데 족장 가운데 12명을 선출해서요. 가나안으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쵸.

민수기 13장, 민수기 13장 ... 민수기 13장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군을 보내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Y Según lo que aprendió

él también actualmente tuvo misma relación con Dios

Oyendo su voz, creyendo en la promesa que Dios prometió, y avanzó valientemente a la tierra de Canaán.

conduciendo al pueblo de Israel

Esto no fue algo pequeño. cosa pequeña.

¿Cierto? (que) lo que Dios no está lejo, sino está entre los israelitas en la vida real,

 y está hablando con Moisés... Mirando esto, Josué aprendió a servir a Dios.

El que anda con sabios, sabio será; Mas el que se junta con necios será guebrantado.

Con el hombre de Dios, a lado de él, servir al hombre de Dios. Eso fue su trabajo.

Creo que eso fue el trasfondo que hizo posible que Josué viviera todos los días como un hombre de Dios y como el siguiente líder.

También el papel de Moisés fue importante. Porque enseñó a vivir con Dios. verdad?

Y además, otra característica de la vida de este Josué fue(fueron)

la plena fe y la obediencia conforme a la palabra de Dios

Ahora, Desde Cades-barnea, escogieron 12 entre los israelitas, entre los principales,

enviaron a Canaán para espiar.

Num 13

Sale un acomtecimiento que enviaron para espiar.

leamos desde versículo 1.

Núm 13:1-2 Y Jehová habló a Moisés, diciendo:

Envía tú hombres que reconozcan la tierra de Canaán, la cual yo doy a los hijos de Israel; de cada tribu de sus padres enviaréis un varón, cada uno príncipe entre ellos.

이래서 이제 한 사람씩 선출이되었어요.

여기 여호수아도 들어갑니다.

그쵸. 근데 갔다왔어요.

12명이 40일에 거쳐서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들의 보고 내용이 달라요.

10명은 거기 들어가면 우리는 죽습니다.

이렇게 보고하지요.

32절부터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거이니라]

이 열명의 정탐꾼이 와서 보고하는 것은 거기 들어가면 우리는 죽습니다.

이들은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은 등뒤로 한 채요.

자기 눈으로 보고 온 것만 가지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쵸.

근데 이렇게 이야기 할 때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상이한 다른 보고를 합니다.

자 14장 9절....14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Por eso fue elegido uno por uno.

Aquí Incluso Josué también.

Cierto, Fueron y regresaron.

12personas pasando por 40 días, regresaron después de espiar la tierra de Canaán.

Pero sus informes fueron diferentes

10 personas si entramos allí, morirémos

Así informaron.

Núm 13:32 Y hablaron mal entre los hijos de Israel, de la tierra que habían reconocido, diciendo: La tierra por donde pasamos para reconocerla, es tierra que traga a sus moradores; y todo el pueblo que vimos en medio de ella son hombres de grande estatura.

 Núm 13:33 También vimos allí gigantes, hijos de Anac, raza de los gigantes, y éramos nosotros, a nuestro parecer, como langostas; y así les parecíamos a ellos

10 Espías vinieron y informaron : Cuando entramos allí, nosotros moriremos.

Ellos oponiéndose a la promesa de Dios y a la palabra de Dios,

están hablando según lo que habían visto con sus ojos.

Pero cuando hablaron así, Josué y Caleb hablaron otro diferente informe así.

Pues capítulo 14 versículo 9, versículo 6 vamos a ver.

**Núm 14:6** Y Josué hijo de Nun y Caleb hijo de Jefone, que eran de los que habían reconocido la tierra, rompieron sus vestidos,

**:7** y hablaron a toda la congregación de los hijos de Israel, diciendo: La tierra por donde pasamos para reconocerla, es tierra en gran manera buena.

**8: Si J**ehová se agradare de nosotros, él nos llevará a esta tierra, y nos la entregará; tierra que fluye leche y miel.

**:9** Por tanto, no seáis rebeldes contra Jehová, ni temáis al pueblo de esta tierra; porque nosotros los comeremos como pan; su amparo se ha apartado de ellos, y con nosotros está Jehová; no los temáis.

자 완전히 반대되는 보고를 합니다.

선생님들께 한가지 질문드릴께요.

이 정탐꾼 12명이요. 그 중에서 들어가면서, 자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쪽길로 돌아서 딴 길로 가고 우리 10명은 이쪽으로 갈게.

나중에 끝나고 40일지나서 우리 다시 같이 만나.

이렇게 하고 이 보고를 한 거에요? 아니란 얘기에요.

이 열두 명은 같이 다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이 젖과 꿀이 ... 단어가 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보고 왔구요. 그리고 그 땅의 실과를 갖고 왔어요.

13장 볼까요?

자 13장에 23절에 보면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 한 송이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메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취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송이를 벤고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칭하였더라]

여기요. 이 사람들이 보고 온 그땅...열두 명이 보고 땅은 실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보고 오기는 똑같이 보고왔어요. 근데 보고의 내용이 달라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2년이 조금 넘어서 이 자리에 가데스바네아에 도착하기 이전에 출애굽했을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요.

틈만 나면 한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했을때요.

나올때는 어땠어요. 신이나서 나왔습니다.

자 이제는 해방이다. 가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으로 가자. 다 짊어지고 나왔어요. 그쵸.

Informaron totalmente diferente.

Profesores, tengo una pregunta.

Estas 12 espías. Al entrar allí,

Oigan, Josué y Caleb vayan por aquel lado, y nosotros irémos por este camino

Y después de 40 días, nos veremos luego

Así hicieron y informaron? No fueron así´.

Estos doce espías estaban juntos. Y según el mandato de Dios, la tierra..(No recordaba la palabra..)

Regresaron después de confirmar que es la tierra que fluye leche y miel

Además llevaron las frutas de esa tierra

Vamos a ver capítulo 13? si vemos 13 : 23

**Núm 13:23 Y llegaron hasta el arroyo de Escol, y de allí cortaron un sarmiento con un racimo de uvas, el cual trajeron dos en un palo, y de las granadas y de los higos.**

 **Núm 13:24 Y se llamó aquel lugar el Valle de Escol, por el racimo que cortaron de allí los hijos de Israel**

Aquí. La que las 12 vieron era verdaderamente una tierra de leche y miel

Según la promesa de Dios, vieron y regresaron igualmente.

Pero el contenido del informe es diferente. ¿Por qué?

Nosotros...Los israelitas.. después de salir de Egipto, pasando más de 2 años,

antes de llegar este lugar, hasta Cades-barnea

sabemos bien el comportamiento del pueblo Israel desde Éxodo.

Pienselo bien. Ellos...

Con frecuencia se quejaban a Dios, se alejaban de la palabra de Dios. podemos observarlo

¿Cómo fueron al salir del Egipto? Estaban entusiasmados.

¡YA ahora estamos Libre! ¡Vamos!

¡Vamos a la tierra de Canaán prometida

Salieron llevando todos. ¿Verdad?

근데 나오고나서 홍해바다 앞에서 이스라엘백성들은 또 뭐했어요.

예~ 하나님을 또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쵸. 기회만 있고 틈만 있으면 그들의 속의 있는 것을 그대로 내놓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는 있지만 실제 그 중심에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은 없었다고 봅니다.

보세요. 또 그리고 홍해바다 앞에서 하나님 원망했던 그 사람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홍해바다 가르셨어요.

그리고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었어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14장에 그 홍해바다를 건너고요.

15장에는 뭐했어요. 처음에 하나님을 그 입으로 찬양했어요. 그쵸.

홍해바다 건너기전에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똑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요.

3일이 지났습니다.

예~~물이 다 떨어졌어요.

물 없으니까...또 하나님 원망해요. 안해요?

원망합니다. 마라라는 곳에서....

우리를 이 땅에서 목말라죽게 먹을 것도 없고

이런 땅으로 데리고 오다니 차라리 그 땅에서 살게두지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 또 이 모습으로 가네스바데아에서 하나님 또 원망합니다.

처음부터 그랬어요. 계속....

고기도 없고 여기는 심을 땅도 없고 포도송이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잖아요. 우리 고기도 못 먹었는데...

메추라기 주세요.

그거 먹으면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이왕이면 유질 좋은 걸로 주지...아닙니다.

Pero después de salir, ¿Cómo hicieron los israelitas frente al Mar Rojo?

Sí, murmuraron a Dios de nuevo. reclamaron a Moisés

Sí. si tuvieran el tiempo, hubieran oportunidad, ellos mostraron lo que tenían en sus corazónes.

dicen que) creen en la palabra de Dios,

Pero en realidad en sus corazónes no hay servir a Dios.

Mirad. Además Los que murmuraban a Dios antes de Mar Rojo.....

Dios dividió el mar Rojo a través de Moisés---

Y Hizo cruzar como andar por una tierra seca.

Y luego, cruzaron como Éxodo 14.

y en el capítulo 15 ¿Qué hicieron? Al principio, alabaron a Dios con su boca.

La gente, Antes de cruzar el Mar Rojo, ellos con mismas personas.

Y pasaron 3 días.

El agua se agotó totalmente

Como no había el agua, reclamaron a Dios o no?

Reclamaron en el lugar llamado Mara

¿Por qué hiciste venir a este mal lugar, para que muramos de sed nosotros.

Ojalá hubiera dejado que vivamos allí.

La gente que decía así murmuraron a Dios de la misma manera en hasta Cades-barnea.

Desde principio… continuamente

Aquí no hay carne, No es un lugar de sementera, de viña, ni higueras

Por lo tanto Dios les dio maná.

(Nosotros tampoco no hemos comido la carne)

Ofreció codornices

Comiendo esos, ¿Cómo dijeron?

Si ha de dar\*, ojalá denos lo mejor. No....

고기 주니까 입에서 코에서 비린내 날 정도로 먹으면서 하나님 찬양했습니다.

찬양한 입으로 다시 원망하고 결국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눈앞에 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 갔는지 모르고요.

어디로 갔는지 없고, 자기들 육신의 눈으로 믿음을 떠나있는 것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호수아는 갈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쵸.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그대로 나옵니다.

이건요. 한 순간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쵸. 민수기 32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자들의 이십 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정녕히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순종치 아니하였음이니라

다만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볼 것은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음이니라 하시고]

예~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했다고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했던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민수기 27장 그 앞에 몇 장 넘기면요. 27장

아까우리 읽었던 말씀 중에 18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예 ~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요.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자래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이에요.

그쵸.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를 다음세대에 지도자로...삼으라고 하셨고 모세는 그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Cuando les dio la carne,

Ellos alabraron a Dios comiendo hasta que llegara el olor hasta la nariz

Con la boca que había alabado, volvieron a murmurar de y no entendieron qué es la promesa de Dios

Sin importar eso, solamente se alejaron de la fe siguiendo su carne.

Entre ellos, Josué y Caleb no fueron así.

Aparece ellos cómo sirvieron a Dios.

Eso no puede suceder(es posible) por un momento.

Cierto? Numeros 32:11,12, leamos juntos.

Núm 32:11 No verán los varones que subieron de Egipto de veinte años arriba, la tierra que prometí con juramento a Abraham, Isaac y Jacob, por cuanto no fueron perfectos en pos de mí;

 Núm 32:12 excepto Caleb hijo de Jefone cenezeo, y Josué hijo de Nun, que fueron perfectos en pos de Jehová.

Sí. fueron perfectos en pos de Jehová Josué y Caleb.

En definitiva, se expresa declaramente fue un hombre perfecto en pos de Jehová.

Y el Núm 27, si adelantamos unos capítulos..

Capítulo 27, entre las que hemos leído, desde versículo 18.

Y Jehová dijo a Moisés: Toma a Josué hijo de Nun, varón en el cual hay espíritu, y pondrás tu mano sobre él.

Sí, esa palabra dicha por Dios

Cuando Dios habla,

Dijo que es un varón en el cual hay espíritu.

Él es a quién Dios ha reconocido.

Verdad?

Dios ordenó que tomese a Josué como el líder de la siguiente generación,

Y Moisés obedeció según esa palabra.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 여호수아는 차세대 지도자로 이스라엘백성들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립니다.

근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여호수아의 ....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다음세대 지도자로 삼아주니까요.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를 대신하여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계속 진군해 나갑니다.

자 ~ 지도자의 역할은요. 지도자는요.

자기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그 역량을 그 영향을요. 다른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다 끼칠 수밖에 없어요.

여호수아는 왕이에요.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왕이라고 말씀하신 데는 없어요.

모세가 왕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누구라고요.

통일왕국의 첫 번째왕...이건 사울이에요. 그쵸.

이스라엘의 첫 번째왕은 사울이에요.

그전의 왕은 없었어요.

그러면 왕 이전에는 누가 다스린거에요.

직접 그들은 다스리신 건 하나님이 다스리신거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겁니다. 그쵸.

왕정시대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선지자도 두셨고, 사사도 두셨습니다. 그쵸.

그 이전에 지금 위대한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세워두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거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냐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Y conforme a esa palabra, este Josué como el líder de la próxima generación, guió a los israelitas a la tierra de promesa de Dios.

Pero los israelitas.. Moisés designó(hizo designación) a Josué como el líder de la proxima generación.

Mirando eso, los israelitas según la palabra de Dios aceptaron a Josué como el líder en lugar de Moisés,

Marcharon continuamente a la tierra de Canaán obedeciendo la palabra.

El papel del líder. El líder es…

Tal como se comporta, podrá afectar directamente a las personas que están juntos

Josué fue el rey, o no?

Ninguna vez que decía Josué como un rey.

Pues Moisés fue el rey, o no?

No. No.

¿Quién fue el primer rey de Israel?

El primer rey del reino unificado ...fue Saúl. Verdad?

El primer rey fue Saúl.

Antes.No hubo rey

Entonces, ¿quién gobernaba ante el rey?

Dios mismo reinó a ellos directamente.

Dios les gobernó directamente a través de los hombres de Dios. Sí.

Antes de entrar en la monarquía, Dios colocó(puso) profetas y también jueces entre el pueblo de Israel.

Anteriormente Dios levantó a los líderes grandes, y

por medio de ellos, Dios gobernaba a los Israelitas.

Dios mismo gobernó. Pero

Él reina al pueblo de Dios con la palabra.

Sin embargo una persona que no obedezque perfectamente a la palabra, ¿Cómo podría encargar este ministerio?

De ninguna manera.

여호수아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던 거에요.

자 그리고 여호수아의 삶은 계속 전쟁이라고 전투 중에서 살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쵸.

맨 처음에 여호수아가 등장했을 때 누구랑 싸우고 있었어요? 예?

아말렉...이 아말렉 족속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아말렉족속은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혔던 사람들이에요.

그쵸. 이스라엘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조금만 쳐지면 아말렉 군대가 와가지고 쳐져있는 사람들 다 아주 아말렉은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호수아가 가나안으로 입성하는 것은

우리가 실제 신앙생활가운데, 우리의 대적과 싸우고 있는 모습을 말씀하시는 것과도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 싸우는데요. 이 아말렉은요.

광야생활에서의 대적...우리 신앙생활에서의 우리의 대적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아말렉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아말렉은요. 창세기 36장에 보면 에서의 손자 아말렉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딤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나았으니 이들은 에성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의 아들....그러니까 에서의 손자가 아말렉이에요.

이 아말렉의 후손이 바로 이스라엘백성들을 계속 괴롭혔던 그 사람들이죠.

El principal carácter de Josué fue perfecto en pos de la palabra de Dios.

Y además Les dije que la vida de Josué fue continua de las guerras.

Cuando apareció por la primera vez Josué,

¿Con quién peleaba?

Con Amalec. La tribu Amalec ¿Quién eran?

Este tribu Amalec, si vemos en la biblia, ellos siguieron molestando a Israel continuamente

Sí? En el camino de desierto, cuando el pueblo de Israel estaban cansados,vinieron los ejercitos de Amalec, y molestaron

Así Amelec siguió molestando al pueblo de Israel continuamente.

Guiar al pueblo de Israel a Canaán

Podrá conectándose con el aspecto de la vida cristiana peleando contra nuestro enemigo.

Pues, el pueblo de Israel lucha contra Amalec.

Ese Amalec fue…

Fue el enemigo en el camino del desierto.

Podemos entender que es nuestro enemigo en nuestra vida Cristiana. Vamos a pensar poco más acerca de este Amalec.

Este Amalec, en el Genesis 36

Dice que

36:12 Y Timna fue concubina de Elifaz hijo de Esaú, y ella le dio a luz a Amalec; éstos son los hijos de Ada, mujer de Esaú.

Hijo de hijo de Esaú. Es decir el nieto de Esaú fue Amalec.

Y los descendientes de Amalec fueron aquellos que siguieron afligir(molestar) a los israelitas.

그리고 이 아말렉 족속은요. 결국...결국...

히스기야때... 시므온지파에 의해서 완전히 제압을 당합니다.

역대상...역대상 4장 4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위에 녹명된자가 유다왕 히스기야 때에 가서 저희의 장막을 쳐서 파하고 거기있는 모우님 사람을 쳐서 진멸하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 거하였으니

이는 그 양때를 먹일 목장이 거기 있음이며 또 시므온 자손 중에 오백 명이 이시의 아들 블라댜와 느아랴와 르바야와 웃시엘로 두목을 삼고 세일 산으로 가서 피하여 남아있는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 거하였더라]

이때 아말렉족속이 이제 멸망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아말렉은요.

이 아말렉을 하나님은 특별히 아말렉을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백성을 계속해서 괴롭혔어요.

그쵸. 근데 그것을요.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5장을 찾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네게 안식을 주실때에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예~~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말렉족속들이 친 것을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라고 ....

Y la posteridad de la tribu Amalec.. finalmente..

En la reina de Ezequías, fueron destruído totalmente por la tribu de Simeón.

Crónicas 1, capítulo 4, versículo 41

41 Y estos que han sido escritos por sus nombres, vinieron en días de Ezequías rey de Judá, y desbarataron sus tiendas y cabañas que allí hallaron, y los destruyeron hasta hoy, y habitaron allí en lugar de ellos: por cuanto había allí pastos para sus ganados.

42: Asimismo quinientos hombres de ellos, de los hijos de Simeón, fueron al monte de Seir, llevando por capitanes a Pelatías, Nearías, Rafaías y Uziel, hijos de Isis, 43: Y destryeron a los que habían quedado de Amalec, y habitaron allí hasta hoy

En este momento, el tribu de Amalec fueron destruidos. Pues pero estos Amalec...

Especialmente Dios A Amalec.... este Amalec siguió molestando al pueblo de Israel en continuo.

Pero eso, acerca de eso Dios dice que es oponerse contra Dios.

Deu 25

Vamos a leer Deu 25 versiculo 17’19

Deu 25:17 Acuérdate de lo que hizo Amalec contigo en el camino, cuando salías de Egipto;

Deu 25:18 de cómo te salió al encuentro en el camino, y te desbarató la retaguardia de todos los débiles que iban detrás de ti, cuando tú estabas cansado y trabajado; y no tuvo ningún temor de Dios.

Deu 25:19 Por tanto, cuando Jehová tu Dios te dé descanso de todos tus enemigos alrededor, en la tierra que Jehová tu Dios te da por heredad para que la poseas, borrarás la memoria de Amalec de debajo del cielo; no lo olvides.

Sí, a los israelitas, estar contra el pueblo de Israel, el tribu de Amalec

al final fue estar contra de Dios.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결국은요.

이 아말렉을 통해서 계속 괴롭힘을 받는데

근데 이 괴롭힘을 받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가운데서 쳐진 사람들이 괴롭힘을 당했다고 그리고 그들을 쳤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신앙생활가운데도 적용이 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육신에 있는 자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수 없는 거에요.

이 아말렉은 육신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쵸.

자 이런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아말렉과의 전쟁도 치루고 그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을 하는데 칠년이 넘게 걸려요. 그쵸.

갈렙을 통해서 헤브론 산지를 완전히 평정할 때까지 7년이 넘게걸려요.

분배할 때까지 그 기간 동안에 매일매일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어요.

몇 명을? 예?

몇 명의 지도자에요?

몇 명을 인도하고 있어요?

이백만명...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백만명을 데리고 매일매일을 전쟁 가운데 ....매일매일 그들은 먹이고 재우고 그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진군하고 있습니다.

이건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도 아닙니다.

우리선생님들 분반에요. 여름 성경학교할 때 10명만 넘어가면 우리선생님들 힘들었어요.

그 아이들 데리고 3박 4일있는데...

여호수아는 몇 년을 이백만명 데리고 있었다고요.

자 ~~ 작은일이 아니에요.

Los israelitas, fueron acosados por el Amalec

Pero ser persiguidos(recibir este sufrimiento), especialmente las personas derrotadas entre los israelitas fueron hostigadas y acosados. así dijo.

Creo que es una enseñanza que se puede aplicarse en nuestra vida de fe.

Los que viven según la carne no pueden agradar a Dios.

Este Amalec, se puede explicar como la carne. Sí?

Bueno, después

Se tardaron más de 7 años en luchar contra los amalecitas y entrar a Canaán y conquistarlo.

Hasta que tomó completamente las montañas de Hebrón por Caleb, se tardaba más de 7 años.

Durante todo este periodo –proceso Josué dirigió al pueblo de Israel

Pero ¿Cuántas personas? Cuántas?

¿Cuántos líderes?

¿A Cuántas personas estaba dirigido?

Dos millones de personas.... Pensadlo bien.

Con dos millones de personas, todos los días en medio de las guerras...

todos los días hay que alimentarse y alojar... llevándolos a la tierra prometida por Dios.

Esto no fue algo pequeño, ni siquiera fácil.

Los profesores.

Cuando estabamos en el Retiro(Conferencia), es muy difícil para los profesores tomar más de 10 estudiantes en un palalero.

llevamos a estos niños por cuatro días y tres noches...

Pero ¿Por cuántos años, Josué tomaba dos millones de personas?

 No es una cosa pequeña.

 자 그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매일매일 본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 자기 일을 다 할 수 있었던 것은 예?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고 그 말씀 가운데에서만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에요.

**여호수아 1장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말씀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6절부터 보겠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한땅을 얻게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두려워말며 놀라지말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호와에게 주신. 근데,

여호수아가 했던 것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율법을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대로 다 지켜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렇죠?

여호수아가 그러잖아요. 여호수아는 평생 이랬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200만명을 데리고요, 예? 매일매일을

Además entre eso, tenía que mostrarles una completa obediencia a la palabra de Dios en su vida como un ejemplo día a día

La clave que este Josué pudo cumplir su encargo(trabajo) como el líder..

**Él obedeció totalmente a la palabra y vivió conforme a la palabra.**

Josué capítulo 1. Al hablar Dios a Josué, le dijo así con la palabra.

Desde versículo 6

Jos 1:6 Esfuérzate y sé valiente; porque tú repartirás a este pueblo por heredad la tierra de la cual juré a sus padres que la daría a ellos.

Jos 1:7 Solamente esfuérzate y sé muy valiente, para cuidar de hacer conforme a toda la ley que mi siervo Moisés te mandó; no te apartes de ella ni a diestra ni a siniestra,

para que seas prosperado en todas las cosas que emprendas.

De 8 hasta 9, leamos juntos.

Jos 1:8 Nunca se apartará de tu boca este libro de la ley, sino que de día y de noche meditarás en él, para que guardes y hagas conforme a todo lo que en él está escrito; porque entonces harás prosperar tu camino, y todo te saldrá bien.

Jos 1:9 Mira que te mando que te esfuerces y seas valiente; no temas ni desmayes, porque Jehová tu Dios estará contigo en dondequiera que vayas.

Es la promesa de Dios. Él se lo dio a Josué.

Sin embargo, piensa en lo que hizo Josué.

Nunca se apartará de tu boca este libro de la ley, sino que de día y de noche meditarás en él, para que guardes y hagas conforme a todo lo que en él está escrito; porque entonces harás prosperar tu camino, y todo te saldrá bien.

Es la promesa de Dios. Sí?

Josué lo hacía. Josué lo hacía en toda su vida

Peso pensadlo. Llevando 2 millones de personas. ¿Sí? todos los días.

그리고 평화로운데 사는 게 아니고 전쟁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그 땅

그 땅은 빈땅이 아니잖아요/ 그 땅에 있는 사람들과 전쟁해서 그 땅을 차지해야돼요.

근데 어떻게 종일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겠냐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백성을 다스리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겠어요.

언제 책볼 시간이 있겠으며, 언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럴 시간이 어디있겠어요.

지도자의 역할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고 있는, 지도하고 있고, 인도하고 있는 지도자로서 가장 갖춰야 할 덕목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여호수아가 분명 본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어린 영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는 교사들

선생님들 지도자들 예.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전쟁하고 있어요. 우리도 싸우고 있습니다.

예?하나님 말씀에 복종치 않으려는 내 몸도, 육신도 쳐서 복종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도 싸우고 있습니다. 마귀의 유혹과도 싸우고 있구요

보이지 않지만, 치열한 전투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신앙생활, 앞에 서있는 선생님들의 신앙생활이 결국

누구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요? 아이들에게까지

Además no vivía en paz, sino en la guerra en la tierra prometida por Dios.

Esa tierra no estaba vacia. Tenía pelear contra la gente que vivían allí para ocuparla

Pero ¿Cómo pudo meditar la palabra de Dios todos los días-todo el día?

Además gobernar al pueblo de Israel y vivir según la palabra ¿Cómo?

¿Tuviera un tiempo para leer, para meditar la palabra?

Entre los papeles del líder lo más importante es

Sí, sobre todo, como digno d ser líder que gobierna y guia al puebla de Dios

Hay que llenar con la palabra de Dios en si mismo.

Y teniendo con esa palabra, Creo que Josué mostró el ejemplo.

Los profesores también son los líderes.

Los profesores que enseñan con la palabra de Dios a las almas que Dios encarga,...

Los líderes y los profesores no son diferentes.

Nosotros también estamos luchando en la guerra, estamos peleando.

Sí? Contra mi cuerpo que no está sujeto a la palabra de Dios, el cuerpo

Y estamos peleando contra el mundo también luchamos contra las tentaciones del diablo.

Aun es invisible, pero estamos en una batalla encarnizada.

Y mi vida cristiana. la vida cristiana de los profesores, finalmente

¿A qué-quién afectan? A los estudiantes.

여호수아의 모습이 200만명에게 영향을 끼쳤던 것처럼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하나님은 그런 위치에, 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치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에요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선출했고 하나님의 일 가운데 두셨던 것처럼 예?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지도자들입니다.

나와 내 집은/ 누구만 섬기겠다고요? 예, 하나님만 섬기겠다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리고 종일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노라고

그리고 그렇게 했다고

신앙생활은요 지금, 오늘/ 오늘이 모여서 결국 하나님앞에 서는 나의 인생이 되는겁니다.

그쵸?결국 하나님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내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는 것은 ‘생활’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오늘 하루를 예? 오늘 하루 교회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우리 선생님들 진행하셔야 되는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그것이 생활이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였습니다.

자, 우리가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쵸?

요한일서 5장. 한 번만 더 찾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Igual que el aspecto de Josué afectaba a 2 millones de los israelitas.

Nosotros, los profesores, Dios nos consignó tal posición en que pueden afectar- tengan la influencia.

Designó(elegió) Dios.

Así como Josué fue elegido por Dios y le puso en la obra de Dios. ¿Sí?

Los profesores, también. Son los líderes.

PERO YO Y MI CASA SERVIREMOS A JEHOVÁ.

¿A quién serviremos yo y mi casa? Sí. serviremos solamente a Dios, a Jehová.

Y meditaré todos los días en la palabra de Dios

Y lo cumplió completamente

La vida cristiana es...... Ahora y Hoy.

Si se acumula el hoy, al fical se convierte en mi vida en la presencia de Dios.

Es decir, obedecer la palabra de DIos. No es para mañana

Para hoy

Para Josué, guiar al pueblo de Israel según la palabra fue la VIDA.

Hoy, el día del hoy Como los profesores trabajan en la escuela de la iglesia con sus encargos.

Para Josué también eso fue su vida si misma.

Y entre esto, servía a Dios.

Y mostró el ejemplo al pueblo de Israel.

Oye, Nosotros estamos enseñando a los estudiantes con la palabra de Dios. ¿Verdad?

Buscamos 1Jn 5:4

1Jn 5. Desde 4 hasta 5. Leamos juntos.

---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바로

예, 잘 생각해보세요.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왜 지도자로 선출을 하셨겠어요?

하나님이 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에 모세를 다음한, 모세를 대신한 지도자로 왜 세우셨을까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했던 것은

‘가나안’ 정복과 그리고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고 사는 것을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여호수아의 역할은 이스라엘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서 안주하게했던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린 영혼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그쵸?

초등부의 교육의 목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리를 깨달아/거듭나게 한다.

이것이 초등부의 교육의 목표예요.

그쵸?그리고나서 결과적으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것이 여호수아를 통해 하시고자했던 일이라면,/

1Jn 5:4 Porque todo lo que es nacido de Dios vence al mundo; y esta es la victoria que ha vencido al mundo, nuestra fe.

 1Jn 5:5 ¿Quién es el que vence al mundo, sino el que cree que Jesús es el Hijo de Dios?

Sí, peinsenlo bien. ¿Por qué Dios eligió a Josué como el líder?

¿Por qué Dios estableció a Josué como un líder después de Moisés?

Lo que Dios quiso cumplir a través de Josué

fue la conquista la Canaán y el asentamiento del pueblo de Israel allí.

Dios quiso cumplirlo a través de Josué.

Para nosotros también. Sí.

Así como el papel de Josué era gobernar al Israel bien para entrar y asentar a la tierra prometida,

las almas de los estudiantes que encargamos!

Criar\*educar a ellos como el hombre de Dios, esto es lo que Dios nos ha consignado.

El objecto de la educación de la primaria...

Para entender la verdad y ser salvo como el hombre de Dios. Eso es la meta de la primaria.

Y Luego, el resultado?

Un hombre que teme a Dios y obedece su mandato.

Educar como un hombre que sierva a Dios es el objeto.

Lo que Dios quiere cumplir a través de Josué

es la conquista la Canaán y el asentamiento del pueblo de Israel en la Canaán.

.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우리 아이들, 거듭나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하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도자로 세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세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 가운데 정말 내게 향하신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내 속을 채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모습으로

우리 아이들 가르치는 것이 우선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지도자로서 본을 보이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하나님

저희 이 연약한 저희들, 주님의 이 크신 일에 세워주셨고,

주님 사용하여주시고, 계십니다.

아버지하나님, 저희들 더욱더 주님의 일을 예비하고 또 준비된 자로 주님의 일에 임할 수 있도록

저희 각자에게 필요한 하나님말씀의 은혜 더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더욱더 열심으로 주님의 일에 임할 수 있도록, 충성된자로 임할 수 있도록

저희들 지켜주시고 또한 하나님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Pues nuestro papel que nos dio Dios

Los estudiantes para ser salvo a través de la palabra.

Educar con esa palabra para que sean los que sierven a Dios.

Eso es el objeto y el plan que Dios ha establecido a nosotros como los líderes, como el hombre de Dios que instuyen la palabra, así yo pienso

Nosotros estamos en este lugar para este ministerio.

Más y más en la palabra de Dios y en su voluntad,

¿Qué será su voluntad para mí?, ¿Qué quiere hacer a través de Mí?

Llenando desde dentro de mí, obedeciendo según la palabra, tenemos que enseñar a los estudiantes primeramente. Así pienso yo.

Supongo eso es el aspecto del lider ejemplo.

Oramos juntos.

Dios Padre de misericordia,

levantaste a nosotros débiles para este gran ministerio y estás utilizándonos.

Dios padre, para que nosotros preparemos más la obra del Señor y que estémos dispuesto en tu obra

Añádenos la gracia de la palabra de Dios que necesitan cada uno de nosotros.

Para que seamos fieles y listos en tu obra

Protégenos y además utilizanos preciosamente en el trabajo de Dios.

정말 주님의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서 수고하는 우리교사들

필요한 은혜 더하여주시고

저희 각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영광, 드러날 수 있도록 저희들 사용하여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많은 계획가운데, 주님 저희들 불러주셨고

저희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찬양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온전히 주님 손에만 의탁드립니다.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렸습니다.

Los profesores que están trabajando duro en el ministerio del Señor, añadeles las gracias necesarias.

Y utilzanos para que sean mostrados el plan de Dios y la Gloria de Dios a través de cada uno de nosotros.

Hoy también entre muchos planes, Señor nos llamaste y confiamos en que tú nos utilizarás.

Ayúdanos para que muestre la Gloria del Señor y que sea el tiempo de alabar al Señor.

Confiamos hoy el día solamente en tu mano, Señor.

En el nombre de nuestro Señor que está orando ahora también, hemos orado agradeciendo. Amen.